

9-15-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누가복음 21:25-36

말씀제목: 하나님의 교회의 구속(휴거)과
이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왕국)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눅 21:25-26)

또한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눅 21:28)

“구속”이라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 받음으로 인해 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되는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앞으로 대환란 끝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지난

이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롬 14:17-18)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세상 나라들은 유엔에 모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에 출마한 두 후보들 모두 이스라엘 땅을 나눌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미리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흠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정녕, 오 투로와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을 3:1-5)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신 후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 제자들에게 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요 16:13-15)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이미 표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처참한 재앙들을 직접 겪었거나 메스컴을 통하여 미리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실신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모든 깊은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나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자.”(시 148:7-14)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휴거의 날에 그분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